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3 0910

Vol. 101

Smart Choice Best Care

# 인하대병원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13 뇌암 | Hello 닥터\_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Medical point\_ 뇌암





# 지금 시작되는 그들의 첫 걸음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은 늘 두려움과 설렘을 한번에 느끼게 해줍니다.  
수술 환자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외과 레지던트의 삶.....  
이제, 진정한 외과의사로 태어나기 위한 수술 첫 걸음을 앞두고 떨림과 함께  
책임감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새로운 시작점에 섭니다.  
가장 정확하고 절대적인 손을, 지혜로운 머리,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 인하대병원

Sept  
+  
Oct 2013 Vol.101

### 건강 한걸음

- 04 **축사** 인하대학교 총장 박춘배
- 06 **취임사** 의료원장 김영모

### 연중기획\_인!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13 뇌암

- 08 **Hello 닥터**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 11 **Medical point** 뇌종양의 흔한 증상 두통, 머리 깊숙이 뻐근해지고 찾아지고 심해지고!
- 14 **Health touch** 심근경색 - 사느냐! 죽느냐! 골든타임에 달려다!
- 17 500kcal 3g 소금의 503 건강 도시락

### 사랑 두걸음

-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장봉도 트레킹
- 22 **Special people** 왈츠와 닥터만 박물관 박종만 관장
- 24 **모르면 지는거다** 보호자없는 병동 - 우리가족 돌봄병동

### 나눔 세걸음

- 26 **Global INHA** 해외의료봉사활동 - 우간다 / 베트남
- 28 **Today INHA** 전화예약센터 - 친절, 신속, 정확하게~
- 30 **희망천사탈레이** '희망을 여는 가게' 민마리나 수녀
- 32 **인하철표** 몸과 마음이 치유된 감동적인 순간
- 34 **톡톡 약물상담** 사마귀 치료 후 12주 지나도 여전히한다면...
- 35 **병원 탐방** 알렘병원

###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 39 **Info desk** 무료공개강좌 + 홍보영상



표지\_장욱진 作 - 비상 | 1984년작 | 종이에 마커, 크기미상 |

##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인류 건강과 행복이라는 최종목표를 이루시길!

오늘부터 우리 인하대학병원은 김영모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리더,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김영모 의료원장과 새로이 보직을 맡게 된 임직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심히 수고하신 전임 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료기관, 즉 인하대병원은 기본적으로 병을 잘 낫게 하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인 치료 외에 내면의

아픔도 같이 치유함으로써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는 복합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법과 시술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의료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좀 더 쉽고 빠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와 함께 질병에 맞서야 하는 특수한 임무를 가진 의료기관이야말로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경감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학병원은 전문적 인프라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특수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병원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자세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의료인으로써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하대병원과 인하대학교가 서로의 능력을 융합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발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병원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양한 해외의료지원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등에 인하대학교와 인하대병원을 알리며 공헌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활동에 안주하지 말고, 국제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마음자세를 가져달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해외의 개발도상국 의사나 의학도들 교육하여 우수한 의료진으로 양성시켜 돌려보내고, 해당 국가의 의료 환경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원조 수혜국 입장에서 공여국으로

변화된 국가의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외에도 저개발국가의 의료시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하대학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 인하대병원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역할과 임무를 선도하는 인하대병원을 만들어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성원들의 협력과 단합을 통하여 우리의 목표, 인류를 위한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2.

인하대학교 총장 박 춘 배



Congratulatory Message

존경하는 이사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인하가족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인하대학교 의료원의 의료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 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년 반 동안 우리 병원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발전을 이끌어 주신 박승립 의료원장님과 모든 보직자 여러분들께도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하대병원엔 선대 회장님께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뜻에 따라 1996년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하였으며, 조양호 이사장님 역시 선대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계속 헌신하고 계십니다.  
개원 이후 우리 병원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주위의 다른 병원들 또한 더 빨리 변하고 발전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합, 혁신, 그리고 금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화합은 모든 것의 본질이자 우리 병원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병원은 여러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전문분야가 공존하는 복잡한 조직 사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병원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 그리고 직종 내의 화합은 필수적입니다. 화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합이란 모든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같이 나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 직종 또는 부서의 이익보다 병원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즉, 홍명보 감독의 One team, One spirit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의 화합을 이루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살아남는 좋은 강인하거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대응하는 종이래 하였습니다. 지금의 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의료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타 병원과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환자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져서, 더욱더 쾌적한 환경과 더욱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의료서비스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도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합니다. 정제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환자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서비스 마인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혁신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의 환경을 닮하기 전에 나의 매너리즘과 무사안일주의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진료의 혁신은 지속적인 투자로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진료 특성화를 통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쟁력있는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인 투자로 인천 지역 최고 병원으로 거듭난 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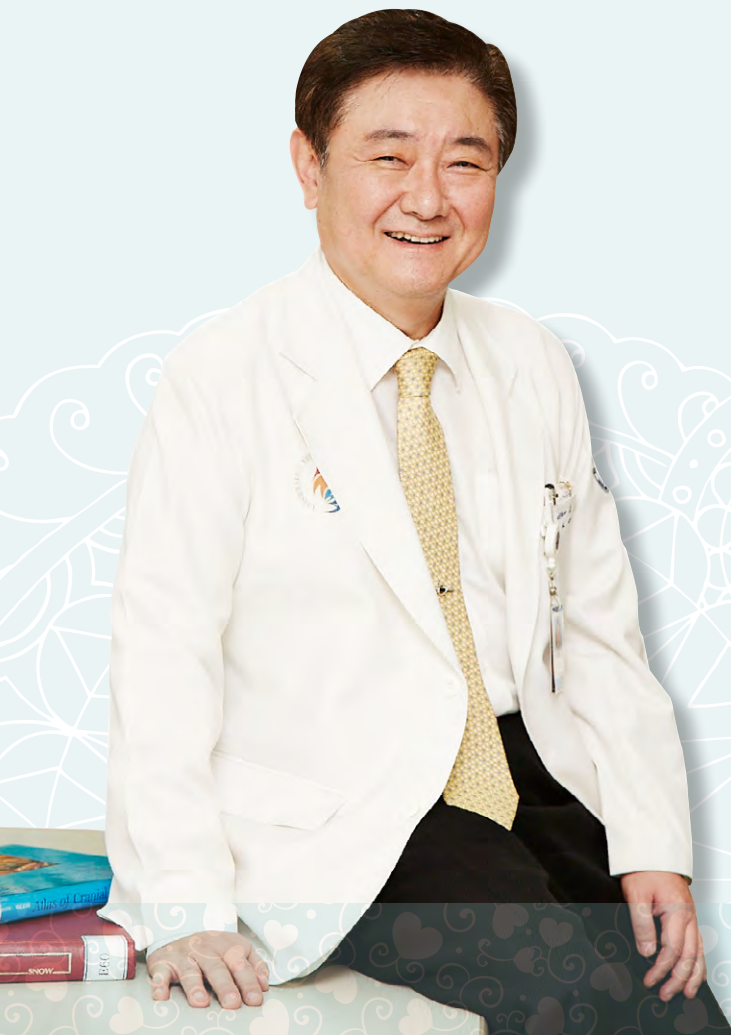
**그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키워드는 금지입니다**  
스스로를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부속 병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정석인하학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한진

그룹에 속한 재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조직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병원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때 환자들과 지역사회에서 믿음과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경인 지역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확장을 통하여 병원 규모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면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ig 7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환자들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열하고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았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감과 믿음 그리고 능동적 사고의 DNA가 우리 병원 조직문화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교직원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가 옵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하고, 오지 않으면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여러분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며, 2020년까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병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희망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2.  
의료원장 김 영 모 

‘화합, 혁신, 금지’ 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공유하며  
**희망과 자신감으로  
지혜를 모아 도약합시다!**





최근 가수 김혜연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유서까지 썼으나 수술 후 완쾌되어 건강한 활동을 재개했다고 한다. 이처럼 뇌종양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 특징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완치 가능한 경우도 있는 만큼 이겨내려는 의지와 믿음은 중요하다. 말보다 행동으로 환자에게 신뢰로 보답하고, 때론 작은 위로를 건네며 그들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를 만났다.

(글\_이정희 자유기고가 사진\_da view studio 송인혁 실장)

신의 보호영역, 머릿속 깊은 곳으로  
**비슷하고 같은 수술은 없다,**  
머리와 가슴으로 '순간'을 결정한다!

# 김은영 교수

##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이해를 우선으로

인체의 '두개저'란 뇌를 받치고 있는 두개골의 바닥 부분의 뼈를 말한다. 사람의 얼굴 뼈와 뇌 사이에 위치한 이 두개저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뇌간과 심장에서 뇌로 공급되는 굵은 동맥혈관과 12쌍의 뇌 신경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곳이다.

“아마도 신께서 보호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인간의 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난이도 높다는 '두개저 수술기법'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을 하는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의 말이다.

이런 만큼 또 변수가 많다. 그러나 환자를 만나면 일반적 치료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하는 김 교수다. 그리고 환자 개인의 증상, 위치, 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의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계획을 짜고 모든 걸 종합한 다음 수술 후 예상되는 모든 걸 다 설명한다. 수술 치료, 경과 등을 관찰하면서 방사선, 약물치료에 대한 계획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깊이 있는 설명을 한다. 김 교수는 환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세한 설명을 한다.

## 수술할 때 결정은 머리와 마음으로

아직 병의 발생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특별한 예방법 없는 것이 뇌종양이다. 수술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수술은 시작된 것이다.

“마음속으로 진행과 계획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이 결정의 연속이죠. 비슷하고 같은 수술은 없습니다. 수술할 때 결정은 손이 한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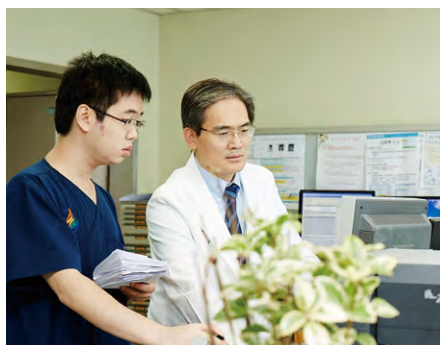
| 연중기획 | 암! 함께 이겨내요 / 암시리즈 13 뇌암

2011년 9/10월호-유방암, 11/12월호-대장암 2012년 1/2월호-소아암, 3/4월호-위암, 5/6월호-간암, 7/8월호-혈액암, 9/10월호-폐암, 11/12월호-갑상선암  
2013년 1/2월호-자궁난소암, 3/4월호-두경부암, 5/6월호-전립선암, 7/8월호-췌담도암, 9/10월호-뇌암, 11/12월호-피부암



**Profile**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는 1985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강사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다. 2001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미국 신시네티 의과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종양 및 두개저수술 분야를 연수하였고, 2012년 대한두개저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전문분야는 뇌종양,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소아신경질환에 대한 수술이다. 특히 신경외과 수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두개저수술기법을 이용한 뇌종양수술, 안면경련 및 삼차신경통에 대한 미세혈관감압술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수술 및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진료에서 소통은 우선이다.

리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뇌라는 신의 보호 영역, 한 발 잘못 디디면 그걸로 천길 칼산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 집도를 하는 김 교수는 준비가 잘 된 신경외과 의사는 준비과정 단계마다 중요하고 목표를 향해서 발전해 가는 과정도 길다고 생각한다.

수술 후 기대나 결과가 예상치 않게 오는 경우도 사실 없지는 않다.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들이닥치기도 한다면서 김 교수는 몇 년 전의 여성 환자 기억이 난다. 마비 증상도 없고 단지 두통 증상만 있는 뇌암 환자였다고 한다. 처음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도중 6개월 후 또 재발한 것을 시작으로 2개월 후 또 재발하는 등 특이한 경우였는데 미지의 영역임을 새삼 느끼는 참 안타까운 기억이었다고 한다.

**신경외과는 자연스러운 선택**

아버지의 모습이 늘 존경스러웠던 김은영 교수는 의대로 진로 결정을 한 것은 자연스러운 길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업, 병원 실습 등 생명의 한쪽 끝에서 희망과 긴장을 놓지 않는 신경외과 교수님들을 보며 주저 없이 선택한 김 교수다. 인간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중요한 뇌를 수술한다는 것, 그에게 그것은 정상을 향해 달린다는 흥미 진진한 매력이었다.

수술실에서 만났던 환자가 외래로 찾아주었을 때 김 교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진료시간이 된다.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늘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머리카락을 깎고 두개골을 열어야 하는 환자의 두려움까지 그리고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가 함께할 때 작은 희망에서도 최고의 치료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환자에게는 이런 당부를 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다.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있다면 김 교수의 열정은 식지 않으리라.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진하는 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낌없이 말이다.

신경외과 의사가 가야 하는 길은 멀다고 마음먹은 그는 오히려 근성이 발동한다. 또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생존의 가능성 때문에 수술을 시도하는 김 교수에게서 의사의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포기한 환자들을 설득하고 응원해 주면서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 교수에게 이 동반에서의 도중하차는 없음을 확신한다.

# 뇌종양

뇌종양의 흔한 증상 두통  
머리 깊숙이 뻐근해지고 째어지고 심해지고!

뇌종양의 흔한 증상으로는 두통과 간질 발작이다. 특히 과거에 간질 발작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 간질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는 뇌종양 등의 뇌병변 가능성이 크다. 또한 뇌종양은 신경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편마비, 시력저하, 복시(물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 안면마비 또는 안면 통증, 청력저하, 이명, 어지러움 등이 있다. (글\_ 김은영 교수 / 신경외과)

**뇌종양이란?**  
뇌는 신경세포,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신경교세포,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뇌를 싸는 뇌막,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정상에서 세포는 분열과 퇴화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나 만약 뇌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 중 일부가 통제를 벗어나면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되어 비정상적인 세포의 덩어리인 뇌종양을 형성하게 된다.

뇌종양은 크게 양성 뇌종양과 악성 뇌종양(뇌암)으로 나뉘며, 악성 뇌종양은 양성 뇌종양에 비해서 자라는 속도가 빨라 비교적 단기간 내에 큰 덩어리를 형성하며, 정상 뇌조직 내로 파고드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양성 뇌종양에 비해서 증상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증상을 더 심하게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인 양성 뇌종양에는 수막종, 뇌하수체선종, 청신경초종이 있다. 악성 뇌종양(뇌암)의 경우는 교종(신경아 교종), 전이성 뇌암이 대표적이다.



### 뇌종양의 증상

뇌종양의 증상은 뇌종양의 종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뇌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다. 뇌종양 환자의 약 1/3 ~ 1/2이 두통을 주소로 병원을 찾게 된다. 따라서 두통을 동반하지 않는 뇌종양도 약 1/2 정도는 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전체 두통의 원인 중 뇌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는 점이다. 두통의 원인에는 뇌종양 외에도 신경성(긴장성) 두통, 편두통, 뇌졸중에 의한 두통, 고혈압에 의한 두통, 경추의 이상에 의한 두통 등이 있으므로 감별을 요한다.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머리 깊숙이 뻗어나오는 느낌을 주는 두통이거나 지끈거리는 두통의 형태로 시작되며 두통의 발생이 점차 잦아지며 강도가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뇌종양이

진행되면 수면 중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설치게 되고 잠에서 깰 때 두통을 느끼면서,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된다.

뇌종양의 증상 중 두통 다음으로 흔한 것은 간질 발작이다. 특히 과거에 간질 발작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 간질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는 뇌종양 등의 뇌병변 가능성이 크다.

뇌종양은 신경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편마비, 시력저하, 복시(물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 안면마비 또는 안면통증, 청력저하, 이명, 어지러움 등이 있다.

뇌하수체선종의 경우는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을 조절하는 뇌하수체기능의 이상을 일으켜 무월경, 유즙분비, 말단비대증, 중심성 비만, 성욕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어지러움증상  
편마비  
안면마비  
지끈거리는 두통  
시력저하  
안면통증  
이명



### 뇌종양의 조기진단 중요성

뇌는 매우 손상을 받기 쉬운 조직이며, 두개골 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여유공간이 없으므로 뇌종양에 의해서 쉽게 손상을 받는다. 따라서 뇌종양을 방치하는 경우 악성, 양성에 관계없이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뇌종양은 진행될수록 정상 뇌조직, 뇌신경, 뇌혈관과의 분리가 힘들어지므로 그만큼 치료의 위험성이 커지고 완전제거의 가능성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뇌종양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지체하지 말고 MRI나 CT 검사를 받아 조기에 뇌종양을 진단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뇌종양의 치료

뇌종양의 치료에는 수술치료(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치료 등이 있으며 뇌종양의 종류에 따라 단독 혹은 병합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뇌종양 치료의 일반적 원칙은 수술을 통하여 절제 가능한 경우(특히 양성뇌종양의 경우는) 완전 절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양의 위치나 주위 뇌신경, 뇌혈관과의 관계로 인하여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절제한 후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방사선치료, 사이버나이프치료(방사선 수술), 항암제치료 등을 시행하여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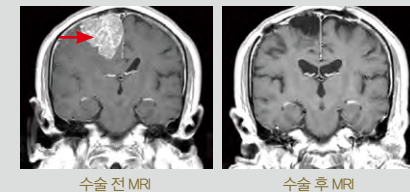
양성 뇌종양의 경우는 수술만으로도 완치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악성 뇌종양의 경우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가 필요하다. 뇌종양은 불치의 병이란 선입견을 버리고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신경외과 ☎ 032-890-2370

## 뇌종양 치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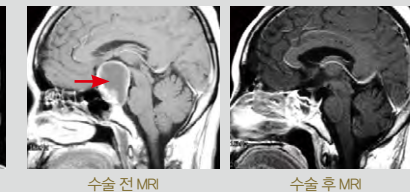
#### < 수막종 (양성 뇌종양) >

53세 남자,  
두통, 간질 발작을 증상으로 내원함. 수술치료를 완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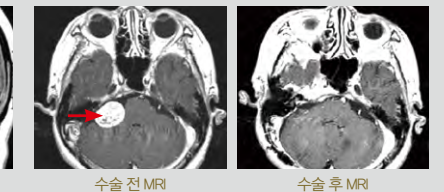
#### < 뇌하수체선종 (양성 뇌종양) >

35세 여자,  
무월경, 시력저하로 내원함. 수술치료를 완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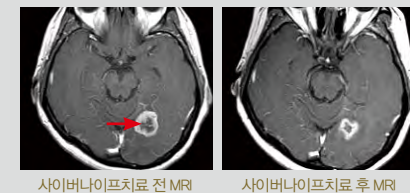
#### < 청신경초종 (양성 뇌종양) >

45세 남자,  
우측청력소실로 내원. 수술치료를 완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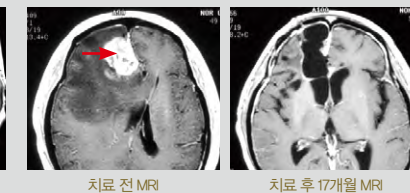
#### < 전이성 뇌암 >

55세 여자,  
폐암에서 뇌로 전이됨. 사이버나이프치료 시행함



#### < 신경아 교종(교종) >

57세 여자,  
수술, 방사선치료 시행함



# 사느냐! 죽느냐! **골든 타임**에 달려있다!

## 심뇌혈관질환은 우리가 책임진다!

'골든 타임'은 말 그대로 환자에게 있어 '황금처럼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정지 환자는 4~6분, 중증 외상환자는 1시간,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생기고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글\_우성일 교수 / 심장내과)



**50**세 남자인 김OO 씨는 가족과 저녁 식사 중이었다. 한참 밥을 먹던 중에 가슴이 갑자기 콕 막히고 빠르게 아파서 물을 먹었으나 가슴 통증은 계속되어 119 앰블란스를 타고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왔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장이 멈추면서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에서 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에 심장은 다시 뛰었으며 심전도 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바로 심혈관촬영실로 이동하여 막힌 관상동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았다. 심근경색이 생기고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OO 씨는 4일 후에 퇴원하였고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평소에 조깅을 하면서 아마추어 마라톤대회도 참가하여 10km를 완주하곤 한다.

**60**세 여자인 이OO 씨는 저녁식사 후에 잠을 자려고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묵직하게 아프고 불편했다. 저녁을 먹은 것이 체했거나 생각을 하고 소화제를 먹고 누웠으나 불편함은 계속되어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다음 날도 증상은 비슷해서 오후에 집 근처 병원에 갔다가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왔다. 응급실에서 심혈관촬영실로 이동을 해서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 시술을 받았으나, 심근경색이 생기고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데 까지 약 20시간이 걸렸다. 이OO 씨는 시술을 받고 7일 후에 퇴원했으나, 심장기능이 정상치의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로 조그마한 언덕길을 오르는 데도 숨이 차서 매우 힘들어하며, 몸이 붓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 2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같은 심근경색환자인데 두 환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의 생활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드라마 '골든 타임'을 본 적이 있나요? '골든 타임'은 말 그대로 환자에게 있어 '황금처럼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정지 환자는 4~6분, 중증 외상환자는 1시간,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생기고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하며, 특히 급성 심근경색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후 90분 이내에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 주는 치료를 받아야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합병증을 줄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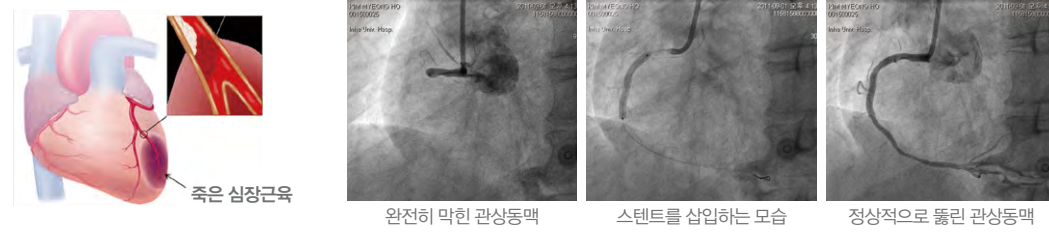




있다. 심근 경색이란 심장에 혈액(산소와 영양소)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으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심장의 근육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말한다. 심근 경색이 발생하면 약 20~50%의 환자가 수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심장 마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장 마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가 늦어질수록 심각한 심장기능의 저하, 부정맥 등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이 많아져 사망할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급성심근경색의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이 가장 대표적이는데, 가끔은 어지럼증, 소화불량, 체한 듯한 느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을 '0점', 죽을 것 같이 심한 통증을 '100점' 이라고 했을 때 50점 이상이면 즉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급성심근경색 치료의 핵심은 최대한 빨리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혈전용해제를 많이 사용했으나, 혈전용해제는 일부 환자에게서 효과가 없거나 막힌 혈관을 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해서 막힌 관상동맥을 직접 뚫는 시술을 하며, 시술한 경우가 혈전용해제로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성적이 더욱 좋다.

인하대병원은 2012년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전문인력이 대기하고 있고 환자가 응급실 도착 후 시술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응급치료를 요하는 질환에서 골든 타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성패의 핵심이다.

●문의 : 심장내과 ☎ 032-890-2200



저나트륨 식단으로 직원들의 나트륨 줄이기에 나선  
인하대병원 영양팀과 CJ프레시웨이의

## 500kcal 3g 소금의 503 건강도시락

(글. 영양팀)

### 503 건강도시락 식단



#### monday

소고기 가지볶음, 부시맨 빵  
두부&토마토 베이비채살러드 &  
오리엔탈 드레싱  
513kcal / 소금 3.2g



#### tuesday

그릴 돈불고기, 오곡견과주먹밥  
단호박 번벙 비타민샐러드 &  
키위 드레싱  
493kcal / 소금 2.5g



#### wednesday

건과류 오니기리, 두부&가지구이  
방울토마토 그린샐러드 &  
오리엔탈 드레싱  
685kcal / 소금 3.0g



#### thursday

달걀고추장구이, 오곡주먹밥  
바나나 양상추샐러드 &  
머스타드 드레싱  
492kcal/소금 2.0g



#### friday

그릴샌드위치, 바나나  
오이피클 베이비샐러드 &  
키위 드레싱  
629kcal / 소금 2.0g

소금은 '하얀 금', '하얀 보석'으로 불릴 만큼 예부터 귀한 먹거리였다. 얼마나 귀했으면 로마시대에는 소금을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주었겠는가! 그러나 2013년의 소금은 천덕꾸러기다.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비만 등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소금의 주성분인 Na+이 주목의 대상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서울시 등 각종 친환경 단체들은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에 힘을 쓰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나트륨 2,000mg)이다. 그러나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31mg으로 2.4배가 넘는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하대 병원 영양팀과 CJ프레시웨이는 저나트륨 식 제공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직원 식당에서 배식하는 중식 국물류의 염도를 기존 0.8%에서 0.7%~0.6%로 제공하고 있고, 차후 0.5%까지 줄일 예정이며 매월 30일 '삼삼한 데이' 이벤트를 통해 저나트륨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소금양과 칼로리를 제한하고 신선함과 맛으로 무장한 '503 건강 도시락'을 직원들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칼로리 조리법과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500kcal에 맞게 식단을 구성하고, 천연 재료와 저염 소스를 활용해 한 끼 소금 양을 3g 이하로 낮췄다. 또 트랜스지방 사용을 제한하고 식이섬유는 6g 이상으로 풍부하게 함유하도록 했으며 무기질과 비타민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무조건 '소금을 먹지 말자'고 몰아가는 것에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선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세포활동에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봉도(長峯島)는 이름 그대로 ‘긴 봉우리를 가진 섬’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크고 작은 봉우리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섬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섬 내 최고봉은 해발 151m의 국사봉. 섬에는 이 국사봉을 중심으로 남동쪽으로는 상산이 자리 잡고 있고, 북서쪽으로는 봉화대가 불쭙 솟아 섬의 등뼈를 이루고 있다. 장봉선착장과 가막머리 전망대가 섬의 남동쪽과 북서쪽 끝을 이루고 있으니, 섬의 등뼈를 이루는 능선 트레킹은 ‘장봉선착장 ~ 상산 ~ 국사봉 ~ 봉화대 ~ 가막머리 전망대’로 이어진다. 총 8.1km 거리로, 종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다.

여기에 최근 장봉도엔 가막머리 전망대와 장봉4리를 잇는 해안 트레킹 코스도 조성돼 함께 걸을 수 있다. 해안을 따라 자연 그대로의 바윗길을 타고 넘는 다이내믹 코스로, 구간 거리는 총 2.1km며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이다. 하지만 해안 코스는 썰물 때만 트레킹이 가능하다. 출발 전에 미리 물때를 알아보고 움직여야 하며, 능선 코스에 비해 길이 다소 험하고 다이내믹해 혼자 가거나 어린이와 가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산, 바다, 해안, 숲... 바람이 되어 섬을 걷는다!

제대로 ‘등잔 밑’이 어두웠다. 공항철도로 더욱 가까워진 섬, 장봉도. 길게 이어진 산 능선을 타고 걸으면 발 아래로 푸른 바다와 너른 갯벌이 펼쳐지고, 해안에는 악어껍질 같고 시루떡 같은 바위가 줄기차게 이어진다. 밀물 때마다 드러나는 모래톱만도 무려 세 개. 그만큼 장봉도엔 숨겨진 매력이 많고 풍치 좋은 공간도 많다. 하루면 섬 전체를 걸어 돌아볼 수 있는 섬. 그 섬 장봉도에서, 산을 걷고 바다를 걷고 갯벌을 걷고 숲을 걷고 마을을 걷고 가을을 걸었다.

( 글/사진\_ 이시목 여행작가 )





1



2

**Travel TIP\_**

장봉도는 '팜 스테이(farm stay)'로 이름을 알린 섬이다. 경운기로 밭 갈기, 고구마와 고추 심기 등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여러 곳 있다. 체험비용은 1인당 5,000~10,000원 선. 봄에는 나물 캐기, 공취 채취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여름에는 감자 캐기, 갯벌 체험, 그물 체험 등을 운영한다. 가을이면 웅진군의 특산물 중 하나인 섬포도와 고구마 수확체험 등을 해보고 직거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장봉도 팜 스테이 홈페이지(<http://www.jblfarmstay.co.kr>) 참고.

**교통**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장봉도로 가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서울역에서 용유역까지 운행하는 공항철도를 타고 가다 운서역에서 하차한 다음 길을 건너 삼목선착장으로 가는 221-1번 버스(매시 40분 출발)를 타면 되는데, 운서역에서 삼목선착장까지는 15분 정도가 걸린다.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로 가는 배는 매시 10분에 출발하며, 장봉도까지는 40분 정도가 걸린다. 마을로 가는 버스에 배 시간에 맞춰 선착장에서 출발하므로, 하선 즉시 버스에 탑승할 일이다. 장봉도에서 삼목선착장으로 나오는 배는 매시 정각 출발.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삼목선착장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문의 삼목선착장(032-751-2211)

1. 장봉도 최대 규모의 백사장을 자랑하는 웅암해수욕장 전경
2. 해안 트레킹 중에 만난 갯것들
3. 장봉도 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주름형 바위
4. 장봉도의 낙조 명소로 알려진 가막머리 전망대 전경
5. 국사봉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여행객들

**Tracking 1.**

**장봉4리에서 가막머리까지 해안을 걷다!**

먼저 해안부터 걷는다. 해안 트레킹의 기점이 되는 곳은 장봉4리다. 장봉선착장에서 장봉1·2·3리를 경유하는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중점인 장봉4리에 닿는데, 이곳에서 '윤옥골 방향 이정표'를 따라 700m 정도를 움직이면 된다. 시멘트 포장길이 끝나고 등근 자갈들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윤옥골. 해안 트레킹은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라, 이곳에서부터는 특별한 길이 없다. 길이 따로 없으니 널브러진 자갈을 밟고 걸어야 하고, 큰 바위를 타고 넘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는 말 일이다. 이름 하나 갖지 못해 사람들이 그저 '악어껍질바위 해안'이라 부르는 이곳을 걷는 즐거움이 상상 이상이니 말이다. 특히 기이한 바위들의 출현이 반갑다.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장과 적벽강의 기암들처럼 바위가 켜켜이 쌓인 주름형 바위도 있고, 악어껍질처럼 우둘투둘한 바위도 눈에 띈다. 누군가 일부러 조각해 놓은 것처럼 곡선이 기하학적인 무늬를 이룬 바위도 있고, 은색의 줄무늬가 그로테스크하게 그려진 바위들도 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볼 게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모양과 무늬를 가지고 있어 탄성이 절로 난다. 이뿐일까, 짧은 협곡과 해식동굴까지 있어 지루할 틈 없이 걸을 수 있다. 여기에 썰물 때면 지천으로 널린 소라며 조개, 게들을 잡는 재미는 덤. 멀리로는 모래톱까지 드넓게 솟아올라 장관을 이룬다.

**Tracking 2.**

**가막머리에서 선착장까지 산길을 걷다!**

해안트레킹이 끝나는 가막머리 전망대에서부터는 섬의 등뼈, 그러니까 산의 능선을 타고 걷는다. 섬의 북서쪽 끝인 가막머리 전망대는 바다와 그 바다에 등실 떠오른 모래톱을 조망하기 좋은 곳. 인천에서 손꼽히는 낙조 명소답게 섬의 서쪽 조망이 시원하다.



3

추천 트레킹 코스는 가막머리 전망대에서 봉화대와 장봉3리, 국사봉, 상산을 거쳐 장봉선착장으로 이어지는 8.1km 거리. 하지만 걷다 힘이 들면 언제라도 마을로 내려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이 이 길의 장점이다. 길은 전체적으로 완만하며, 알맞게 숲이 우거져 있어 걷기 좋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능선 길을 따라 좌우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이다. 그러니 조망권이 확보되는 산봉우리, 즉 봉화대와 국사봉, 상산 등에 닿으면 무조건 멈출 일이다. 멈춰 주위를 둘러보시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푸른 바다 위에 하얗게 드러난 모래톱(한강 하류에서 실려 온 모래가 퇴적된 것)들이다. 일명 '폴둥'이라고도 불리는 모래톱이 장봉도에엔 무려 세 개다. 썰물 때면 섬의 남쪽과 북서쪽, 북쪽에 각각 하나씩 드러나 기막힌 절경을 이룬다.

능선 트레킹의 최대 고비는 아무래도 국사봉이다. 완만한 다른 봉우리들에 비해 다소 가팔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 오르막이라고 해봐야 불과 1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걱정 마시라. 진촌 해변과 갯벌이 바라보이는 국사봉에 서서 쉼을 즐기 바람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고로움이다. 국사봉에서 능선 트레킹이 끝나는 지점까지는 3.6km,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다.



4



5

# 커피가 ‘절친’인 남자의 꿈, 세대가 함께 하는 100년가는 커피 집을……

이제 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은 아주 흔한 일상이다. 인스턴트에서 에스프레소로 또 ‘원두’, ‘로스팅’ 등의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전문가가 마시던 핸드드립 커피도 더는 대중에게 낯설지 않다. 이렇게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커피’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왈츠와 닥터만 박물관 박종만 관장이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우리 한국인이 갖는 커피 한 잔의 의미와 역사성을 알리고 올바른 커피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은 것이다.

(글/사진, 이정희 자유기고가)



### 커피에 빠지다

“100년 가는 커피집을 만들고 싶죠. 일본에 가면 오래된 커피집과 스타벅스가 나란히 있어요. 오래된 커피집에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과 노년이 함께 앉아 있어요.”

박 관장이 하고 싶은 건 이런 것이다. 그저 마시고 끝나는 커피가 아니고, 전통이 있고 고유의 색이 있고 마시는 공간과 시간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 말이다.

이렇게 가치 있는 커피문화 전파에 꽃피게 된 것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문학과를 졸업한 박 관장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방문하게 된 일본의 커피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진하게 풍겨 나오는 커피 향만큼이나 커피가 갖고 있는 세계에 또 다른 세계에 빠져 커피를 공부하게 되었죠. 그리고 흥대 앞에 ‘왈츠’라는 카페를 오픈했고 잘되자 프랜차이즈까지 확장됐어요. 준비 없이 하다 보니 관리가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또 호텔경영학으로 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알면 알수록 그의 커피에 대한 열정은 뜨거워졌다. 커피 재배에 대한 관심으로 원예학 공부를 시작해 2006년에 박사 과정 수료를 했다. 지금도 재배를 시도했으나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강원도 두메산골에 토종 커피나무의 열매가 빨갛게 익어 가기는 날을 소망하고 있다.

“저에게 절친이 된 커피는 알수록 역사성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 역사성이 저를 변화시켰죠. 바로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해 준 겁니다. 인류 문화사와 커피는 뿔 수가 없어요. 1920~30년대는 예술가들의 교류 공간이 커피 마시는 다방이었던 겁니다.”

### 구석구석 색을 뚜렷이 하는 커피집이……

맛만을 평가하고 또 그것이 그 커피집의 맛으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을 아쉬워하는 박 관장이다. 똑같은 커피를 누구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마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다. 2~3백년 된 커피집에 가보면 막상 우리의 기준으로 커피 맛은 그저 그렇다. 그 집이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와 역사, 예를 들어 베토벤이 앉아서 마시던 곳이라 하면 어찌 맛없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런 것이 매개체가 되어 후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란단.

커피라는 식물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농부들의 수고와 노

력에 대한 작은 이해를 바탕으로 커피를 내린다면 그 맛은 어떨까? 아마 분명 더 의미 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박 관장의 지론인 듯싶다. 커피를 단순한 경제 산물로 생각하기보다 문화로 잘 보듬어졌으면 하는 그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전 세계의 커피 산지 농민들은 철저히 내 커피가 최고라고 믿어요. 거기엔 아이들의 꿈 실현과 나와 내 가족 생활의 소중함이 있다는 겁니다. 맛의 승부보다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각자의 색깔을 뚜렷이 하는 그런 커피집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봐요.”

박 관장의 생각에서 백 년 가는 커피집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슬며시 느껴진다. 박 관장의 커피 사랑은 음악을 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그가 ‘금요음악회’로 클래식을 접목시킨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커피를 만난 일과 왈츠와 닥터만 박물관을 개관한 일은 박 관장의 인생에서 잘 한 두 가지 일이다. 커피를 공유하며 교류하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발전을 꿈꾸는 커피에 빠진 박만중 관장과의 만남……. 커피 맛의 깊이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 커피, 문화 그리고 예술을 아우르는 커피 박물관 왈츠와 닥터만 100년 가는 커피 명가의 꿈

**박물관** - 남양주시 북한강 강변엔 잘 익은 커피 열매를 상징하는 레드 빛깔의 건물, 100년은 거뜬히 견딜 듯한 위엄이 느껴지는 커피 박물관 ‘왈츠와 닥터만’이 있다. 커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다. 커피와 관련한 컬렉션은 물론 생두에서 로스팅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드립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30년 된 다방 분위기 소파에 앉아 한국 커피 역사를 담은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다



**닥터만 금요음악회** - 클래식 음악회를 통해 커피와 예술과 사람이 이어지는 소통의 장인 음악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북한강 옆에서 연주자와 함께 와인 파티도 이어진다.

**한국 커피 역사 탐험대** - 한국 커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한다. 박물관 입장료를 차곡차곡 모아 커피 역사의 발자취와 정보의 올바른 재정립에 힘쓰고 있다.

**커피아카데미** - 커피 박물관을 교재로 사용하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커피 수업도 진행한다.

\*입장료 5,000원에는 커피 추출체험까지 포함이다.

개관은 오전 10시 반~오후 6시까지이고 휴관일은 월요일이다. ☎ 031-576-6051

# 우리가족 돌봄병동

간호사가 환자의 대소변도 치워주는

보호자(간병인) 없는 병동을 우리 병원에서는 '우리가족 돌봄 병동'이라 이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입원환자에 대한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인하대병원이 유일하게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신개념의 간호 서비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직접 간호을 한다니.....

생소하고 낯설기만 하실 겁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은 저소득층 대상을 위한 복지사업 아닐까? 가족 간의 정과 또 '효 문화'가 중시되는 우리 정서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등등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이 제도는 병원문화를 개선과 인천지역주민에게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입원하는 환자 모두가 신청 대상이 되고 일반 입원과 병실료 차이는 없다. 병실은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물론 병실 차액 비용부담은 일반 병동과 마찬가지로다.

보호자의 신청 후 전문의가 판단을 내리면 입원할 수 있는데 인하대병원의 '우리가족 돌봄 병동'은 총 4개 병동 192병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진료과는 외과,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이며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 후 14일 내에 퇴원 가능한 환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실 제외기준은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소아과, 산모 및 치매, 중증환자 등 보호자 상주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경우입니다. 보호자 또는 간병인 등의 병실 내



항시 상주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환자 상태, 질병의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 인력이 배치되어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 보호자가 정말 병실에서 안자도 될까요?

처음 준비하면서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 과연 보호자 없이 가능할 것인지, 특히 수술 후 보호자 없이 간호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또 보호자 상주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안전사고가 보호자 부재중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등 걱정과 불안감을 안은 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족 돌봄 병동'은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증진시키고, 환자에게 요구되는 직접 간호를 보호자가 아닌 간호 인력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일정 시간대에 환자 상태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 환자가 불안해하지는 않을까요?

환자, 보호자들도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는 환자가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개별간호와 연속성 있고 책임감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팀 구성 및 환자 부담은 수간호사의 통솔로 근무조별 3개 팀으로 운영하고 팀별 2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간호사 1인당 7-9명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근무조마다 1~2명의 간호조무사가 있어 환자의 작은 변화도 정확하고 빠르게 살펴, 응급 상황에서의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간호와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부담을 명확히 하고, 실무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의 적응도를 높여 안정화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운동, 호흡기 간호, 식사 도움, 개인위생, 환의 교환 등의 보호자 및 간병인이 담당하던 간호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조별로 환자 사정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간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돌봄 병동의 시설 환경은 어떤가요?

병실환경 개선을 위해 2실을 5인실로 변경하여 다인실을 확충하였고, 환자와의 접근 용이성을 위해 Sub station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장비와 비품의 신설 및 추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환자 안전간호 강화를 위해 환자 모니터 장비를 추가 구입하였고, 30분 간격으로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의 동태 파악 및 침상 난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접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위변경, 환자 운동, 배설간호, 구강 간호 등 세심한 부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도 컸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빠른 회복을 부르는 건강 병동으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을 얻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우리가족 돌봄 병동'이 앞장서는 롤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원무팀 ☎ 032-890-2333





# 우간다...

## 끝없이 이어지는 따뜻한 이야기

(글\_오경선 사진\_박경환)

“우리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게 바로 50년 전 이야깁니다. 이곳 우간다 사람들의 삶은 내가 어릴 때와 아주 많이 닮았어요. 우리는 도움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곳에 내가 받은 걸 되돌려 주러 빛을 갚으러 온 것이니 그 마음을 잊지않길 바랍니다.” 순간 멍했던 머리가 채워지고 검은 피부의 맑은 미소를 가진 우간다 사람들은 피부색만 다를 뿐 50년 전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50년 우리 부모님들은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앞만 보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주변과 부족한 반대편 그들에게 50년 전 우리 부모님이 받은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갚아야 할 책임과 배려를 이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또다른 몫이라는 마음이 함께했다.

의료 봉사 마지막 날 내과 선생님께서 옥상달빛의 염소 4만원이라는 노래를 소개했다.

‘너희들은 염소가 열만지 아니..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 이래 ~, 하루에 커피 한 잔 아끼면..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2013년 우간다 의료 봉사는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을 마치지만 50년 전 우리와 닮은 우간다에서 함께한 다정한 눈빛과 온기로 우리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간다 의료 봉사는 진행형이다.



# 베트남...

## 의료봉사는 감춰진 어려움도 치료하는 것

(글\_이재훈 / 교육수련부)

### Prologue

구찌 현은 베트남전 당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곳 중의 한 곳으로, 가장 많은 양의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이기도 하다. 베트남전은 1975년 4월로 종전되었지만, 40여 년이 지금도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베트남전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은 지역들이 남아있다고 한다. 우리 의료봉사 팀은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가정의학과 최지호 교수님의 지휘 아래 고엽제로 인한 이쁨이 있는 호치민시 구찌 현으로 포스코 건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사회, 연수구 약사회의 선생님들도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가게 되었다.

### 현지 의료활동

8월 12일부터 본격적인 구찌 현 주민들의 진료가 시행되었고, 3일 동안 서로 다른 지역의 보건소를 돌면서 1,20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하였다. 베트남 대부분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주로 관절통은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대부분은 약물치료가 물리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도였으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보니,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서 마지막 날로 접어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또한,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참전 용사들과 선

천성 기형으로 고통받는 소아 환자들도 적지 않게 방문하였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단기 의료봉사활동으로는 특별히 도와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유난히 기억나는 분이 있었다. 아주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아프다 하시며 진료실에 들어왔다. 고민하면서 검진을 하는데 사실은 아프지 않다며, 50년간 살면서 한국 사람은 처음이라 나의 팔다리를 만지고 피부색을 비교하며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서 너무 신기하다며 멀리까지 봉사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 Epilogue

의료 봉사 활동은 환자를 보고, 진찰하고, 약을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역사적,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 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평화를 위협하는 제도적, 물리적 위협들이 마음대로 그 힘을 드러내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의료 아닐까 생각한다.

2012년 우간다 의료봉사는 떠나기 일주일 전 봉사 인접 지역에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급작스럽게 취소되었기에 사실 2013년 올해도 알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역시나 출발 일주일 전쯤부터 우간다 국경 지역, 르완다 지역은 위험 지역이라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고 기특이나 겁 많은 나는 혹시나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에 게다가 오지랖 넓게도 테러 걱정까지 근심만 한기특 안고 우간다 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만난 의전 원장님과 병원 여러 선생님들, 인하대학교 기생충학과 김동수 교수님 그리고 어린이재단 분들. 우리는 화이팅과 함께 우간다 봉사의 첫 발걸음을 옮겼다.

인천공항 도하를 거쳐 비행과 환승을 거듭하며 하루 반을 이동한 끝에 검은 대륙 그곳. 우간다에 도착했고 이후 일정은 빠듯했다. 첫날 봉사 지역인 키유니에서 진료 준비 및 동선 확인, 약국약품 세팅과 현지 자원 봉사자와의 미팅이 차례로 이어지고 이후 3일간은 현지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 봉사가 이어졌다.

봉사 첫날 아침 상송생송한 가운데 긴장한 우리에게 의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전화예약센터는 고객님께서 병원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입니다. 주요업무는 진료를 위한 진료 예약, 변경, 취소, 확인 뿐 아니라 내원 전 병원이용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때론 간단한 증상에 따라 어떤 진료과를 가는 것이 좋을지 내원목적에 따른 간단한 주의사항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일 하루 전, 이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고객님께서 예약일을 잊지 않으시도록 상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글\_ 박민서 / 전화예약센터)



## 친절, 신속, 정확하게~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마음

저희 전화예약센터는 1996년 병원 개원 시 구성된 센터입니다. 처음에는 총인원 4명으로 시작해서 하루 상담 건수는 300건 정도로 이용률이 높지 않았으나 현재는 총인원 12명에 하루평균 상담 건수 1500건 정도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2012년 10월 CT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전문적인 예약센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전화예약센터의 일상

'정성을 다하는 예약센터 000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도 번갈아 가며 예약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전문적인 상담은 어렵지만 끊임 없는 교육을 통해 불편하신 부분을 듣고 알맞은 진료과로 안내도 해드리고, 분야에 맞는 진료의뢰진도 안내해 드리며 원하시는 시간과 날짜 예약이 되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어려운 부분이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각 진료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진료의뢰센터, 암 진료 상담실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고객님들의 불편하신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

전화예약센터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절, 신속, 정확입니다.

병원은 아픈 분들이 오는 곳이고 아픈 분들은 작은 일에도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친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특히 전화예약센터는 고객들이 처음 인하대병원과 만나는 부서로 병원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부서이니만큼 더욱 친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쉽게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약센터 직원들은 신속한 상담을 위해 모든 외래 진료과에 대한 특성을 익히고 있으며 과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그때그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담원들의 자리를 보면 많은 정보를 메모하고 빠르게 정리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로 예약하더라도 예약한 진료과라든지 예약 일시를 잘못 안내하게 되면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진료과 의료진들과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는 등 시간을 내어 고생스럽게 온 고객님들께 불편이 발생되므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성함 확인, 예약완료 후 예약확인,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일

2~3년 전 겨울 눈이 엄청 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발은 눈에 푹푹 빠지고 많은 직원이 지각하고 아침부터 걸어서 점심때 도착한 직원, 아예 오다가 돌아간 직원들, 의사선생님들도 출근을 못해 아침부터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에게 양해전화를 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던 저도 한 2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눈도 오고 하니 직원들이 많이 지각했으리라 생각하고 괜찮다 위로하며 왔는데 웬일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무리 와도 칼출근하는 멋진 직원들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무과에서 한 직원을 찾아서 무슨일이냐 가봤더니 어느 할머니께서 보따리에 쓴 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직원이름은 제대로 기억 못하셨지만 예약해줘서 고맙다고 나눠먹으라고 집에서 기른 감나무에서 감을 가지째 꺾어서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감이 어떤 건 딸고 맛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고마워하고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신 할머니의 맘이 너무 따뜻해서 뭉은 감마저 달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협력사직원들끼리 송년회를 했는데 각자 장기자랑을 하였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작은 율동을 선보였는데 어렵지만 재미있었고 다른 부서의 배꼽 빠지는 장기자랑을 보면서 일 년 동안

힘들었던 것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 보람, 아쉬움

아침 8시에 전화예약센터가 오픈 되자마자 밤새 아프셨던 분들이 응급실 이용 없이 외래를 이용하시고자 연락을 주셨을 때 원하시는 대로 예약을 해 드리고 나면 전화를 끊으시는 고객님도 고마워하시고, 직원들도 마음이 놓이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반대로 아쉬울 때는 목소리부터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고객님들께 원하시는 대로 예약을 못해 드리고 끊어야 할 때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합니다.

### 하고 싶은 말

병원의 주요업무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치료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병원문을 두드리는 고객님들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마음과 신속 정확하게 필요한 예약 그리고 내원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가진 전화예약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문의 : 전화예약센터 ☎ 032-890-2114



Telephone  
Reservations Center



부모님의 반대로 한국에선 수도자가 되기 어려웠던 한 소녀. 그녀는 20대에 신학 공부를 핑계로 멀고 먼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가난의 영성'을 접하고 국제수도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글\_ 권영선 /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로마에 본부를 둔 국제수도회의 공식 명칭은 '착한목자의 종, 프란체스코 수녀회'.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민마리나 수녀는 이 수도회 소속으로 한국인은 단 세 명뿐이다. 세속이름과 영세명이 '마리나'로 똑같은 민 수녀는 지난 20년간 이탈리아에서 본당사업 외 원로원과 유치원, 기숙사와 피정집 등 수도회 산하 다양한 기관들의 운영자 소임과 수도생활을 병행했다. 인생의 마지막 소임을 한국에서 실천하고 싶어, 2006년 한국에서 소외된 이들이 많은 지역을 찾던 중, 우연찮게 인천에서 지금까지 8년째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가난한 여성, 소외계층의 아동과 이웃들을 위해 일을 하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지는 각오로, 인천교구와 의논을 거쳐 중구 경동에 건물을 신축해서 '돈보스코공부방'을 오픈했다. 돈보스코공부방은 당시 중구에선 유일한 공부방으로 구청의 관심까지 받게 되어 동인천공부방을 추가로 개설했다. 처음에는 주위분들이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아이들이 오진 않는다"며 걱정했지만, 민 수녀는 묵묵히 공부방 구성구석을 걸레질하며 기도에 매달렸다.

"처음 시작할 땐 걸레뿐이었는데, 2년 후 중구에서 가장 좋은 공부방으로 인정받았어요. 저도 교구도 지역에서도 모두 놀랐죠."

하지만 자리가 잡히자, 그녀에게 부평 '희망을 여는 가게'의 운영을 맡는 새로운 소임이 주어졌다. 2009년 1월 교구에서 건네준 500만 원 남짓의 예금통장이 전부. 게다가 그녀에게 주어진 미션은 "국가의 지원은 없다. 더 이상 교구의 지원도 없다. 20년을 해외에서 생활했던 민 수녀로서 도움을 청할 아무런 인맥도 없이 무척 고단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돈보스코공부방때와 마찬가지로 굳은일을 도맡았다.

다만, 가톨릭 교구의 지원이 계속된다거나 가톨릭 신자들만 출입할 수 있

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내 기부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한다. 추운 겨울 매장의 불박이장을 짜고, 가까운 성당의 도움을 받아 자선바자회를 수년간 진행하면서 백여 가지의 생필품을 손수 고른 수고로움 끝에 부평의 '희망을 여는 가게'가 오픈되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찾아오면서, 올해로 4년째 등록회원 수도 350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민 수녀의 '물품조달의 노하우'를 공부하겠다는 구청 공무원들이 공부하러 오기도 한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2010년 지자체의 푸드뱅크사업이 확대되고 자선바자회를 성당이 직접 주도하면서, 민수녀가 운영하는 '희망을 여는 가게'로 들어오던 쌀과 기부금이 거의 중단되는 사태를 겪을 때였다. 먹고 입는 것조차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가 갖는 의미는 매우 소중하다고 말하는 민수녀. "언젠가 동생들과 함께 강원도 월정사를 찾았는데, 그곳에서의 '공짜 점심'은 정말 자비로운 체험이었어요. 큰돈을 절약한 느낌에 남은 돈을 잘 써야지 하는 보람과 기쁨까지 느껴지더군요. 가난한 이들이 '희망을 여는 가게'에서 무료로 필요한 것을 가져갈 때, 같은

기분일 겁니다." 물질적 지원을 받는 만큼 정신적 풍요로움도 함께 얻는 것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생필품이 공급되니, 독거 어르신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90세의 몸으로 물건을 받으려고 오셔서, 끼니를 거르던 차에 위안을 받는다는 말씀에 도리어 제가 위안을 얻습니다. 장애자식을 둔 할머니들은 장애아들을 먹여살리려는 그 기운으로 힘겹게 버티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도리어 저희들이 힘을 받게 돼요."

쌀 3킬로그램, 라면 5봉지, 국수, 식용유 등 5종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후원받은 빵을 종종 서비스로 제공한다. 지정된 품목 외에 서비스로 제공하는 빵이 있는 경우, 노인분들은 크게 기뻐한다고. '희망을 여는 가게'의 월 운영비는 평균 3~400만 원 남짓. 민수녀는 "적게 들어오면 그에 맞게 운영하는 게 몸에 배었어요."라며 웃는다. 54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천진한 모습이다. 50명의 후원회원과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민수녀와 함께 매장의 모든 운영을 떠맡치고 있다. 전체 지원대상중 30%는 아예 거동이 어려워, 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직접 배달까지 나간다. 매장의 회원자격은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기초 수급자, 실질적 빈곤가정, 장애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350명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했다. 장기지원자를 특별히 고려하되, 단기지원으로 자립을 유도하고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을 알선해드리기도 한다. 남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하느님이 맞춰주시는 것 같다고 믿는 민수녀는 "교만함에 젖지 않도록 자기수련과정이지요."라고 말한다. 부모의 반대를 피해 이탈리아에 수녀의 길을 걸었고, 쉽고 편한 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분의 바람은 뭘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아주면 희망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물질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고민하는 정신적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 돌봄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보고 싶어요. 가장 시급한건 작은 상담공간을 만들고 싶다는거....."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 032-830-1004
- 부평 '희망을 여는 가게' (부평구 부개2동 492-14) ☎ 032-515-9004

# 가난한 이들의 '희망을 여는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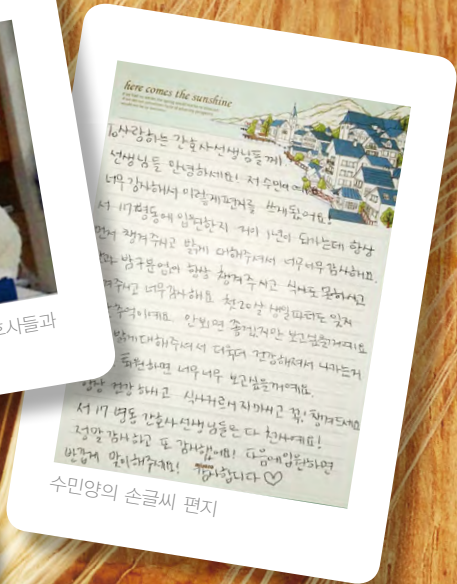


2008년 7월 여름 복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배급하는 모습

▼ 2013년 1월 홍미영 부평구청장(중앙)과 함께  
▶ 2012년 9월 오태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님의 후원금 전달과 희망가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몸과마음이 치유된 감동적인 순간,  
오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수민양의 편지

사랑하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 수민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요!  
서 17병동에 입원한 지 거의 1년이 되었는데 항상 먼저 챙겨주시고  
밝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낮과 밤 구분 없이 항상 챙겨주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첫 20살 생일파티도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안 되면 좋겠지만 보고싶을꺼예요. 항상 밝게 대해주셔서 더욱 더 건강해져서  
나가는 거 같아요. 퇴원하면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서 17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천사예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다음에 입원하면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 고경숙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2일 입원하여 다음날인 6월 3일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담당 교수님이신 김범수 교수님을 감히 칭찬하고 싶  
어 몇 자 올려봅니다. 이미 수년 전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을 받았었고, 물론 무릎은 다른 병원 다른 선생님께 했었구요. 발목을 고치고자 인  
전에서 유명하다는 전문병원을 돌아다니며 여러 선생님들을 만난 건 물론이구요. 마지막으로 말만하면 다들 아시는 전문 병원에 수술 날을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만 다른 여러가지 질병도 있는데 전문병원이라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 하며 인터넷 검색으  
로 우리나라 족부 관절을 치료하신다는 의사선생님은 모조리 검색을 한결과(ㅎㅎ),  
최종적으로 그래도 직장 다니며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인하대병원으로 가자며.....

이렇게 해서 처음 마주 대한 김범수 교수님. 제 상태를 보시곤 다른 병원에서처럼 수술 밖엔 방법이 없으시다며.....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의 2주 동안.....

실밥 제거하고 통갑스한 채로 퇴원 후 그대로 살았다고 살아 있는게 아닌 것처럼 너무 힘든 집에서의 투병을 마치고 깁스 풀러 가던 날 전  
잇을 수가 없습니다. 발목 때문에 수많은 의사선생님들을 만났던바.....

깁스 풀은 제 발목을 그 더운 여름날에, 씻을 수도 없어 얼마나 제 발목이 더럽고 냄새도 낫을 법한데 교수님은 그런 제 발목을 두 손으로 만  
져주시면서....., 고생하셨다면서 잘 나오시기 바라다며 한참이나 이리 만지시고 저리 보시면서....., 물론 환자를 대하는 모든 의사선생님의  
태도가 그러셔야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교수님이 제겐 의술을 베푸시는 분보다는 인술을 먼저 베푸  
시는 것 같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뒤 다시 한 번 정기검진 때도 역시나 교수님은 두 손으로 제 발을 만져주시는 언제나처럼 다정하시고 묻는 말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정말 믿음이 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김범수교수님 같은 분만 계신다면 아무리 큰 병이 있다 한들 마  
음으로부터의 위로는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며 교수님의 건강과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글은 고경숙님께서 고객님의 소리에 올리신 글을 동의 받고 게재합니다.

Q

**사마귀는 왜 생기나요?**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피부나 점막 어느 곳이나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손, 얼굴, 발에 생기며 위치에 따라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은 작고 단단하며 표면이 거칠고 중앙 부위에 검고 작은 점들이 있는 것이 티눈과 다른 특징입니다.

A

사마귀 치료 후 12주 지나도 여전하다면

**감염의 위험 낮추기 위해 진단을**



Q

**사마귀의 예방 및 치료법은?**

**예방** 피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옮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맨발로 다니는 것을 피하고 양말은 매일 바꿔 신습니다. 발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마귀 치료 중에는 방수밴드를 사용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A

**치료** 먼저 사마귀가 얼굴이나 손톱 주변에 있다면 자가치료보다는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생긴 사마귀 치료를 위해서는 약국에서 살리실산이 포함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 타입과 밴드 타입이 있는데 사마귀의 위치에 따라 약사와 상의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법** 미지근한 물에 5분간 발을 담그고 각질을 제거합니다.



티눈 액 : 바셀린을 사마귀 주변 피부에 얇게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사마귀가 사라질 때까지 매일 저녁 반복.



티눈 밴드 : 피부보호를 위해 사마귀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여, 사마귀가 사라질 때까지 2~5일마다 교체.

치료 중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붓고 상처가 나면 즉시 치료를 중단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보통 2~3주 이내에 사마귀의 크기가 감소하며, 4~8주 이내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때** 사마귀의 모양, 색깔이 변하거나 통증이 심할 때 또는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치료를 시작한 지 12주가 넘어서도 사마귀가 여전히 있거나 치료 중 피부에 상처가 생긴 경우라면 자가 치료를 지속하는 것 보다는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가족같이 다정하게 내 집같이 편안하게

**희망을 심고, 행복을 주는 병원을 꿈꾸다!**

부족한 재활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개원한 재활 전문 병원인 알염병원 임병국 병원장을 만났다.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료시설 및 치료인력과 의료진이 한마음이 돼서 가족 같은 편안한 병원으로 도약을 꿈꾸며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임병국 병원장

알염병원은 2011년 10월 가족 같은 편안한 병원을 모토로 환자 중심 진료와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재활의학이란 뜻의 'Rehabilitation Medicine' 에서 첫 글자를 따서 재활치료를 잘했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임병국 병원장은 전한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고치기 어려운 질환들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심한 외상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발전하는 의료 환경은 평균수명을 늘게 했을 뿐 아니라 삶의 질 또한 좋아지고는 있으나 각종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임 원장은 전한다.

150 병상으로 개원한 재활전문 알염병원은 양방의 전문 재활 이외에도 한방의 침, 뜸, 약침의 적절한 사용 등으로 양 · 한방 통합으로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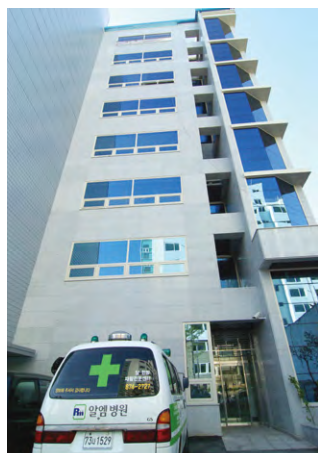
적의 재활치료로 환자의 기능적 장애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염병원은 병원 내 모든 시설은 장애가 발생한 환자에게 맞도록 배려하였고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치료진은 다양하고 정확한 평가 후 치료의 극대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뇌졸중 발생 후 초기 몇 달씩의 적극적인 전문 재활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러한 초기 치료로 환자의 운동, 사회적 기능 회복을 담당 하는 것이 재활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후 신체적인 회복 및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에 중요한 아급성기에는 종합병원과 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임 병원장의 의지가 대단하다. 더불어 재활 소외층에게 희망을 주는 모두가 행복한 병원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인천 남구 한나루로 446 ☎ 032-874-2727



## 인하대학교의료원, 제7대 김영모 의료원장 취임 - 2020년 국내 Top 7 의료기관 목표



2013년 9월 2일(월), 인하대학교의료원 제 7대 김영모 의료원장이 취임했다. 김영모 의료원장은 이날 취임으로 인하대학교의료원장 겸 인하대병원장 임무를 겸하게 되며,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직도 함께하게 된다. 김영모 의료원장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비인후학 의학석사, 박사를 이수했다. 1989년부터 인하대학교에서 재직한 김 의료원장은 인하대병원 적정진료실장과 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대외적으로 2009년도 마르퀴즈 후즈후, 미국 인명정보기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되며 학술계에서도 큰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김영모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인하대학교 의료원은 내부적으로 화합,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며,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의료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인하대학교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잠재력을 모은다면 경기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을 넘어 2020년에는 국내 Top 7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영전략 Workshop - '화합과 혁신, 궁지로 국내 Top 7 이루자'



2013년 9월 13일(금) ~ 14일(토), 인하대병원은 골든스카이호텔 & 리조트에서 '경영전략 Workshop'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 집행부의 경영기조 및 경영목표를 확립하고, 혁신과제 도출과 추진방향 설정 등 향후 인하대병원이 국내 Top 7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으며, 임직원들이 화합, 혁신, 궁지로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인하대병원과 포스코건설이 함께하는 '2013 베트남 의료봉사' 성료



인하대병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포스코건설, 인천 연수구 의사회 및 약사회, 우림복지재단과 함께 베트남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가정의학과 최지호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봉사단은,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진료를 실시했다.

## 인하대병원과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2013 우간다 의료봉사' 성료



인하대병원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재단과 함께 '2013 아프리카 우간다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손병관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 봉사단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형외과 등 8명의 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우간다 키보가 지역에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료 했으며, 인하대학교 기생충학교실의 김동수 교수를 주축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2010년 부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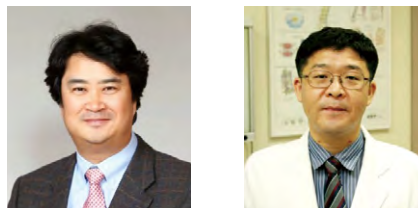
하는 우간다 의료봉사는 올해는 현지언론의 관심으로 신문에도 보도되었으며, 국내 경기방송에서도 소개되었다.

## 인하대병원,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뇌혈관내수술' 인증 의료기관 선정

2013년 7월 29일(월), 인하대병원은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뇌혈관내수술'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인증은 신경외과 뇌혈관내수술 분야에 있어서 인하대병원이 최고의 의료진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며, 환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공인받은 것이다. 특히 뇌혈관내수술은 첨단 영상장비를 이용한 혈관조영술로, 혈관내 미세도관을 삽입해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로써, 사망률이 높거나 수술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합병증이 많은 뇌혈관질환 및 뇌

졸중 등을 치료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과 수련 등이 필요한 분야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신경외과 현동근, 심유식 교수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인증 획득



2013년 7월 29일(월),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와 심유식 교수가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뇌혈관내수술인증의' 인증을 획득했다. 현동근 신경외과 교수는 "인하대병원은 국가로부터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되어 지역사회와의 '골든타임' 사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인증으로 인하대병원 진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수준이 국내 최고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제2회 심뇌혈관질환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2013년 7월 31일(수)과 8월27일(화), 인하대병원은 1층 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 등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혈압 및 혈당 체크와 건강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심뇌혈관질환 전문 교수진이 직접 건강상담을 해주어 많은 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홍보를 위해 퍼즐게임, 다트게임 등을 마련하여 질환관련 정보 제공과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홍보 포토존 기념촬영 이벤트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내원객은 "무료로 심뇌혈관질환 교수님께 상담도 받고, 건강체크도 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관심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박현선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은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2년 11월 25일, 국가로부터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되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서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원격진료시스템으로 도서지역 등 지역사회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장암의 달 기념 건강공개강좌 - '대장암을 이겨내는 특별한 공부'



지난 9월 5일 인하대병원은 '제 6 회 대장암의 달 기념 건강공개강좌'를 진행했다. 대한대장항문학회가 후원하고, 암진료상담실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인하대병원 최선근 외과교수의 '대장암을 이겨내는 특별한 공부' 라는 강연으로 시작했으며, 홍기연 영양사의 '대장암 환자의 영양 식이'에 대한 강의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100여명의 환자 및 보호자 들은 알기 쉽고, 실속있는 정보에 만족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영양팀, 실버식 및 항암치료식 등 식단전시회 실시

2013년 7월 24일, 인하대병원 영양팀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직원식당 앞에서 실버식 및 항암치



료식 등 식단전시회를 실시했다. 영양팀은 환자 들의 신속한 건강회복을 위하여 식단전시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식단개선을 약속했다.

## 2013년 간호윤리상황극 콘테스트 '최우수상(전국 1위) 수상'



2013년 9월 3일(화), 인하대병원은 병원간호사회 주최로 진행된 '2013년 간호윤리상황극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병원간호사회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 윤리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2011년 인하대병원 간호부 외래간호팀 9명의 간호사들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응급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상황을 극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는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 의사 사이에서의 갈등상황과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우수하게 표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24개 병원 중 영예의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2013년도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성료' - 지역 개원의와 함께 발전하는 인하대병원

2013년 9월 7일(토),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내과 및 가정의학과 개원의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2013년도 개원의 연수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용운 교수내과 과정과 인천시 개원내과의사회 김병천 고문



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개원의들이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8개의 강좌가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신용운 교수는 "인하대병원에서는 인천의 중심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개원의와 함께 공동 발전하고자 이런 연수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라며 "최신지견의 활발한 교류로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개원의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인하대병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주)노바레보와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주)노바레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22일 진행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와 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기기 산업분야 정보교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인하대병원 남문석 의생명연구부원장은 "근래에 들어 의약품보다 의료기기가 산업발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많은 어려움도 존재한다."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으로 R&D 역량을 발휘해 산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진행된 (주)노바레보와의 MOU 체결을 바탕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 협의체인 MEDILINC에서 활동 중인 (주)노바레보가 '어지럼증 자가진단 및 치료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2013년도 중소기업청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억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주)노바레보는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팀이 보유한 '어지럼증 해소를 위한 의료

기기' 특허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R&D과제를 통하여 사업에 더욱 탄력을 얻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방사선기술지원 및 안전정보 교류 세미나 성료



2013년 7월 26일(금), 인하대병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방사선기술지원 및 안전정보 교류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권역의 의료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정보를 공유하고자 진행되었으며, 현장 실무자들의 기술적 애로사항 및 관련 기술정보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 파랑새 소식

###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 교육 예정

-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 오후 2시
- 내 용 :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 외과 김세중 교수  
유방암 치료 후 건강관리 - 인하대간호학과 김수현 교수
- 장 소 : 3층 대강당
- 대상자 : 유방암 환우 및 가족



#### ■ 지난 행사 내용

- 7월 आयु회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 9월 4일 화천계곡펜션으로 आयु회 다녀왔습니다.

#### ■ 다음 행사

- ▶ 10월 12일 GBCC(환우의 밤)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 ▶ 10월 13일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여의도 공원

####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10/17(목), 11/13(수), 12/12(목) 오후 2시 ~ 4시	3층 2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3638

### 공개강좌 안내

강좌 일정	제목	강사	장소 및 문의
2013. 10월 15일(화) - 오후 2시	간의날 기념 지역 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	최문석 교수(삼성서울병원), 배시현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영걸 교수(가천대길병원), 진영주 교수(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2013. 10월 15일(화) - 오후 3시	통증클리닉/신경물리치료	마취통증의학과 차영덕 교수	신세계아카데미
2013. 10월 16일(수) - 오후 2시	핑크리본 유방암	외과 김세중 교수 인하대간호학과 김수현 교수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2013. 11월 06일(수) - 오후 2시	골다공증	정형외과 강준순 교수	신세계아카데미

● 문의 : 교육수련부 ☎ 032-890-2641 ●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3. 10. 12 ~ 2013. 11. 01	학생 작품전	인하대학교 미술과	2층 갤러리
2013. 11. 02 ~ 2013. 11. 22	사골 향기	장우정	
2013. 11. 23 ~ 2013. 12. 13	빛의 친구들	김복순	

● 문의 : 홍보팀 ☎ 032-890-2608 ●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nfo desk

##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명 의

2013. 8. 12 / 8. 26



출연 : 김민범 전문의/  
이비인후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 여름철 귀 건강관리/  
보청기 관리

2013. 8. 27



출연 : 변지원 전문의/피부과  
프로그램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내용 : 대상포진의 원인과 치료

2013. 9. 6



출연 : 김영모 의료원장  
프로그램 :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법입니다.'  
내용 : 취임 소감과 포부

2013. 8. 17



출연 : 조세욱 전문의/  
가정의학과  
프로그램 : 남인천방송  
'NB 초대석'  
내용 : 여름철 질병과  
건강관리방법

2013. 8. 27



출연 : 최윤미/외과  
프로그램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내용 : 월미도 분수사고관련  
환자 상태

2013. 9. 9



출연 : 최치호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 환절기 건강관리

2013. 7. 25



출연 : 권대규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2시 뉴스'  
내용 : 하이힐과 안전운전

2013. 8. 19



출연 : 최광성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 KBS 1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내용 : 여름철 탈모관리

2013. 8. 28 / 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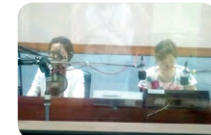
출연 : 임중환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 독소와 해독

2013. 9. 11 - 9. 20



출연 : 우성일 교수/심장내과  
프로그램 : 경인방송 라디오  
공익 캠페인  
내용 : 심혈관질환 예방법

2013. 7. 29



출연 : 김영수 교수/성형외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 액취증의 예방과 치료

2013. 8. 26



출연 : 백지현 교수/감염내과  
프로그램 : YTN 사이언스  
'You are a 닥터'  
내용 : 결핵의 예방과 치료

2013. 8. 29



출연 : 임중환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 티브로드 인천방송  
'종합뉴스'  
내용 : 학교 급식 식품첨가물  
'사각지대'

2013. 9. 11



출연 : 김영구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 SBS 생활경제  
'헬스 UP'  
내용 :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

2013. 8. 1



출연 : 김명옥 교수/재활의학과  
프로그램 : KBS '사랑의 가족'  
내용 : 육창, 일사봉 등의  
원인과 치료

2013. 8. 26



출연 : 손병관 의전원장,  
강희숙 간호사  
프로그램 : 경기방송(FM 99.9)  
'인천의 발견'  
내용 : 우간다 의료봉사의  
살아있는 이야기

2013. 8. 30



출연 : 변지원 전문의/피부과  
프로그램 : 메디컬 TV  
'이슈 N 피플'  
내용 : 여름철 대상포진

2013. 9. 1 - 9. 10



출연 : 김태혁 교수/심장내과  
프로그램 : 경인방송 라디오  
공익 캠페인  
내용 : 심혈관질환 예방법

2013. 8. 5



출연 : 김민범 전문의/  
이비인후과  
프로그램 : KBS 1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내용 : 외이도염의 원인과 치료

2013. 8. 26



출연 : 김민범 전문의/  
이비인후과  
프로그램 : 인천교통방송  
'미추홀 매거진'  
내용 : 보청기 안전관리와 난청





# 인하대병원의

# 특별한 '내일' 을 만드는 가치기부

## 인하대병원 신관건립사업 - 국내 선도 특성화 센터

인하대병원 신관 건립사업은 초일류 의료기관의 표본을 제시하는 최첨단 병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국내 Top 7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동시에 더 나아가 인천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의료기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관은 중증·고령질환 전문병원 컨셉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특성화 전문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성화 전문센터에는 암센터, 심장·뇌·혈관센터, 류마티즘·관절센터 등을 배치하고, 최첨단 장비 도입 및 친환경 건축을 통하여 치유적 환경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 시설개요

- 대지면적 : 약 5,467평
- 건축면적 : 약 2,000평
- 건물면적 : 약 26,000평
- 건축규모 : 지상 15층 지하4층
- 병상규모 : 약 600병상
- 준공예정 : 2016년 예정

###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인하대병원을 사랑하고, 발전을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 개인, 단체 및 법인 명의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후원자께 정성을 다해 예우하겠습니다.

###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_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_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행정지원실 내 발전기금팀

◆ 문의사항\_ 궁금하신 내용은 발전기금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0/3391 FAX : 032)890-3000 e-mail : inhadf@inha.com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